

석조 가사토바

이 석조 가사토바(각기둥 모양이나 널빤지 모양의 탑신에 지붕(가사)을 씌운 탑파(도바))는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아미타여래의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미타여래는 일본에서 가장 큰 불교 신앙의 하나인 극락정토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입니다. 그 가르침은 무한한 윤회전생으로부터 모든 살아 있는 것을 구제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부조로 새겨진 아미타여래는 연꽃에 앉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흙투성이의 더러운 연못에서 연이 성장하듯이 중생이 영적 수행을 통해 존재를 초월하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석조 가사토바는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미타여래를 부조로 배치한 오목한 부분은 화두형(花頭形)이라고 하는 형상으로서, 이는 13 세기에 중국에서 선종의 건축양식이 전해진 뒤 일본에서 선호된, 대륙에서 기원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또한 완만하게 휘어진 ‘지붕’의 아름다운 세부는 가마쿠라 시대(1185~1333)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여의륜관음에게 안겨 희망에 넘친 보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